



전남 장흥 가지산은 해발 500m를 겨우 턱걸이 하고 있지만, 산을 아는 이들에게는 큰 산으로 불린다. 백두대간에서 길러져 나와 정음 내장산-광주 무등산-순천 조계산-광양 백운산을 거쳐 남해로 침잠하는 호남정맥의 마루급 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지산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높이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장엄하다. 이 땅에 선불교의 햇살이 처음 피어오른 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문(禪門)은 당나라에서 서당(西堂)의 남종 선을 전수받은 도의(道義) 선사가 신라 헌덕왕(821년) 때 귀국하면서 처음 열렸다. 당시 교종(敎宗)이 판을 치고 있던 상황이라 선사는 설악산에 은거하면서 선지를 엮어(廉) 선사에게 전했다. 그의 선지는 다시 3대인 보조(普照) 선사 제징(濟淨)에게 전해져서 가지산에 보림사를 중창하기에 이르렀다. 이름 하여 가지산선문이다.



참마자.



보림사 대웅전 앞 깨불지주에 피어난 지리류.



검은등활미새.

보림사는 장흥읍내에서 30km 가량. 국도와 지방도를 바꿔 타며 장흥호와 탐진천 상류를 끼고 달린다. 장흥호는 탐진강 중류를 막은 장흥댐으로 생긴 호수이다. 장흥호가 만수위가 되면 보림사까지는 불과 3km 남짓. 수풀을 막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 댐의 높이를 낮추었다고 한다. 대형 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습적인 안개 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아직 의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숲 가꾸기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벌목해야 할 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 살리는 나무은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얼마 전 강진군에서도 보림사 입구 용문에다 소나무 80여 그루를 옮겨 심었다. 이제 사찰에서도 방생 차원에서 나무은행 제도를 운용해볼까하다.

용문을 지나면 근래 새로 세운 일주문이 서있다. 예전에는 사하촌이 절 입구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으나, 최근 모두 이전해 눈맛이 맑다. 보림사 주변 생태모니터링은 보림사 경내, 보림사 주변 산자락, 그리고 보림사 앞 탐진천 수변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때 일주문 기능을 했던 외호문(外護門) 좌우로 돌담이 가지런하다. 흙이나 시멘트를 쓰지 않고 막돌로만 쌓아서 독특하다. 색깔도 자연 그대로라 부드럽다. 사천문을 지나면 대개 누문(樓門)을 만나게 되는데, 보림사는 실상사와 태안사 등 인근 구산선문과 마찬가지로 통과누문 없이 사천문을 지나면 곧바로 드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보림사 마당에는 대부분 냇가의 자갈들을 깔았다. 여러 그루의 늙은 느티나무와 단풍나무도 서 있어서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담장 주변으로 동백을 주욱 심어놓았다. 보림사 가람배치는 큰 잔디밭이 마당을 가운데 두고 넓은 모자 형태를 이루며 사방에 흩어져 있다. 1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에 비해 가람에 고색이 덜하고,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유서 깊은 전각들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소실되고 근래에 새로 복원되었기 때문이다.

국보 비로자나월불상을 모신 대적광전은 사천문에서 마주 보는 자리에 있다. 대적광전 불상은 9세기 신라 월불의 전형을 보여준다. 당시 아철지(冶鐵地)가 많지 않은 곳에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대웅보전 앞에 있는 깨불탱주는 붉은 빛을 띤 역암이다. 적색역암은 중생대 백악기의 신라동(新羅統) 하부에 속하는 퇴적암의 일종으로, 가지산 일대에 분포한다.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파내려 온 적색역암은 보림사 앞 탐진천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미타전 뒤에 우람한 장승들은 가지산 토박이가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테다(tadal)소나무로 보인다. 바늘잎이 리기다소나무처럼 3개씩 뽕뽕 나기 때문에 '미국삼엽송'이라고는 별칭이 붙었다. 우리 육송보다 생장이 빠르고 필프 제조용으로 경제성도 우수하지만, 추위에 약한 편이다.

대웅보전 앞마당 가운데 수국이 있고, 사시사철 샘이 흐르고 있다. 전설이 깃든 명수(名水)이지만, 현재는 마당의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질은 명성에 못 미칠 것이다. 샘물 안에 불



물까치 (사진제공=정윤영)

### 주종은 굴참나무 등 온대 활엽수·난대수종은 희박 보림사에서 겨울 나는 물까치 봄철에는 산으로 회귀

고기들이 여러 마리 살고 있는데, 갈겨니로 보인다.

경내 한가진 곳에 보초 선사 부도인 창성탑과 탑비가 있다. 창성탑과 탑비 주변은 사자(死者)의 공간이라 잔디를 곱게 깔았다. 안타깝게도 창성탑 탑신을 지의류가 마치 오랜 벽화처럼 덮고 있다. 절 동쪽 산자락에 7기 부도를 모신 동부도전이 있다. 절을 한 바퀴 도는 숲길도 거기서 시작된다. 정상까지는 1km 남짓, 대개 보림사-동부도-야외학습장-야수터-팔각정-선돌-정상 주봉으로 이어지는 길을 이용한다. 장흥군에서 보림사 뒤 비자나무숲과 소나무 숲에 개설한 삼림욕장도 이 구간에 있다.

보림사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비자나무 군락은 면적이 3헥타르에 이르고, 수령은 대개 30~100년 정도에 이른다. 개체수는 200여 그루이지만, 여러 종류의 온대남부수종들과 함께 자라고 있어서 우점종은 다소 떨어진다. 비자나무는 상록 침엽수이지만, 편백이나 삼나무에 비하면 피톤치드 방출량은 크게 떨어진다. 삼림욕장 입지로는 면적도 좁고 경사도 상당히 가파르며 너털도 많이 깔려 있어서 부적당하다. 그런데도 장흥군에서 보림사 주변

관광개발 차원에서 무리하게 삼림욕장을 조성한 듯하다. 더욱이 도시의 아산공원도 아닌 이 산중에 의자와 탁자를 비롯해 안락의자며 발치앉길 등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래도 지나침이 있다. 야외학습장도 숲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초보들의 생육이 좋지 못하다.

비자나무삼림욕장 일부 구간에는 왕대밭이 비자림을 반포하고 있다. 왕대는 원래 아열대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서 왕성한 생육을 보인다. 대나무의 마디수는 줄기의 길이에 비례하는데, 대나무 종류 가운데 왕대가 7개로 가장 많다. 오솔길에 '산책로'라는 이름으로 삼림욕장을 횡단하고 있다. 원래 '오솔길'은 '오소리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겨울이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자 겨울잠에서 깨어난 너구리들이 산 능선 너머 가지산 정상이 보인다. 가지산은 보림사 주변의 비자나무 군락 외에는 소나무와 활엽수

가 반포하는 혼효림이다. 한때는 소나무 전성시대가 있었고, 노송들도 상당했으나, 한국전쟁 통에 거의 희생되고 지금은 봉덕송(鳳德松) 산행로에 남아 있어 옛 영화를 머금고 있다.

다른 선문구산도 마찬가지로 보림사 산림생태역사 특별한 식생적 특징은 없다. 다른 남부지역 일반 산지와 마찬가지로 굴참나무를 비롯하여 참나무류와 느티나무, 산벚나무, 굴피나무 등 온대활엽수가 주종을 이룰 뿐 특기할 만한 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날씨가 따뜻하고 바다가 멀지 않다고 해도 난대수종은 비자나무와 먼 옛날 인공식재 된 차나무 정도에 불과하다.

탐진천은 영암군 금정면 궁성산(484m)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장흥군 군계를 넘어 보림사 앞으로 내려와 구강포 강진만으로 빠진다. 총길이가 56km, 국가 하천치고는 매우 짧지만, 주변 산수가 좋고 물이 맑아서 일찍이 남도의 3대 명천(名川)으로 손꼽혔다. 풍수 하는 이들은 보림사 형국에서 태극처럼 감싸고 돌아가는 탐진천을 가지산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보림사 앞 봉덕계곡은 탐진천의 상류이다. 봉덕계곡의 강폭은 20~30m 정도이다. 갈대와 물억새가 군락을 이룬 아래쪽은 강폭이 40m 이상 되는 곳도 있다. 수심이 2m를 넘나드는 소(澗)도 있지만, 대개 수심은 50cm 정도이다. 겨울철 갈수기인데도 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다.

보림사 윗마을에서부터 용문에 이르는 봉덕계곡은 군대군데 큰 바위들이 흩어져 있고, 하상에는 자갈과 모래가 구간마다 확연히 나누어져 있다. 서부도가 있는 구석마을 앞개울에 여도(魚道)가 설치되어 있다. 봉덕계곡에는 우점종으로 피라미와 갈겨니, 벚들치, 참마자, 참물개, 돌고기, 깍지기 등이 서식하고 있다. 봄철이 되면 일부 물고기들은 장흥호에서 보림사가 있는 상류쪽으로 이동을 한다.

참마자는 물이 맑고 바닥에 모래나 자갈이 깔린 하천의 중상류에서 사는 어종이다. 등은 갈색이고 고 배는 은백색이다. 몸의 양쪽에 작은 점들이 줄을 이고 있어서 특이하다. 물속 근초나 돌에 붙어있는 미생물을 먹기 때문에 주둥이가 길고 입이 아래쪽으로 나온다.

물가에 검은등활미새가 여기저기 포르륵 울며 곱지를 까딱인다. 검은등활미새는 이름 그대로 머리, 등, 가슴, 꼬리 등이 검은 색이다. 예전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분포했으나, 근래에 들어 겨울이던 우리나라 전역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알을 낳고 번식하며 텃새로 살기도 한다.

이 밖에 겨울철 보림사 주변에서 관찰되고 있는 조류로는 박새와 딱따구리 종류를 비롯해서 직박구리, 딱까치, 꿩, 어치 등 텃새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 가운데 물까치는 겨울이면 귀찮아 보일지라도 내려와 살다가 봄이면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는 회유성 조류이다.

봄을 앞당기는 햇살이 탐진천에 물살 짓고 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cafe.daum.net/templeeco](http://cafe.daum.net/templeeco)

## 성불화 카펠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넘어공용

카펠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니커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을 사용해 세련되어 풍교를 떠나 타교인들에도 신성하고 있다. 또한 "카펠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 사용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펠라"는 넘어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니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II "카펠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I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II "카펠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라는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

##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이겨내십시오! 산양삼 직판 특별할인공급

지리산 산양삼 먹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산삼은 노루나 멧돼지 새 등이 산삼씨앗을 먹고 다른곳에 배설하여 썩이나 자라는 것이고 산양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산속에 산삼의 종자를 뿌려놓고 자연 상태에서 10~20년을 기다린후 채취한다.

인삼은 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2~3년만 지나도 손가락 굵기로 크지만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위치한경남 함양군에 있는 지리산산양삼은 울창한 수림속에 잔별이 드는 산삼이 자라는 토양과 같은 조건에서 자라므로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정도밖에 자라지 않으며 토양속 무기질을 영양으로 흡수하기 위해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동안 삼이 좋은줄 알면서 높은 가격 때문에 선택 구입하지 못한 분들게 지리산 산양삼농조합에서 직가



산양삼

※상령, 생신자, 원신자가 표시된 산양삼 중령서가 동봉됩니다.  
※시중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겨울철이므로 통신으로 직판 합니다.

■8년산 3뿌리 -390,000원- 200,000원  
■8년산 6뿌리 -690,000원- 300,000원  
■12년산 1뿌리 -290,000원- 150,000원

문의 1566-3378  
지리산산양삼농조합  
농장 (055) 963-3375  
농협 1285-02-020801 일지영

가죽, 부모님, 고마운 분께 산양삼삼은 평생 잊지 못할 건강선물이 될 것입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삼옷! 「천하무적」 옷 옷가네 토종삼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줄은 알지만 옷값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삼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 기술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 내용량 : 1박스(80ml × 60포) 2개월분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급한 움직임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 인론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교향은 지금 - 옷 만드는 참을 최초 개발
- KBS 교향의 아침 - 참을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산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잘 걱정 없는 참을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을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만드는 참을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을 부작용 걱정해,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원로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참을만 먹어 되는 옷 건강할 뿐만
- ▶2006.8 20 KBS 삼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참을
- ▶2006.10.31 KBS 무한재미극 - 참을

### 구입법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알맞은 재료에서 선택된 이 뛰어난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옷가네 참을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